

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을 최우선으로, 영세업체의 상생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

< 보도 내용 (매일경제, 3.12) >

◆ “영세 샌드위치패널 中企 사면초가”

- 발포조합의 샌드위치패널 표준모델 인정취소로 인해 영세업체 폐업위기.
업체별로 인증받아야 하나, 인증기관 부족으로 1년이 넘게걸려 어려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('20.4.) 등 대형 화재를 계기로 품질인정제도('21.11.)와 실물모형시험('22.8.)을 도입하는 등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.

○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절차를 간소화한 **표준모델***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, 불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
* (표준모델) 조합에서 대표로 동일한 기준으로 실물모형시험을 하여 화재성능을 검증받고, 성능·밀도·시방 등이 동일한 경우 업체는 개별시험 없이 건축자재를 사용

□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표준모델을 사용하는 3개 조합에서 불량자재가 적발되어, 기준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인정취소하였습니다.

○ 국토교통부와 품질인정 전문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개별 업체별 인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, 업체대상 품질인정제도 설명회 개최, 인증인력 지원, 샌드위치패널 전용시험장비 마련 등을 통해 인증기간을 3~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	책임자	과 장	문석준 (044-201-4987)
		담당자	사무관	정희영 (044-201-4988)
주무관	권순웅 (044-201-4992)			